

누가의 세계관

- 에베소 소요사건(행 19:21-41)에 등장하는 오이쿠메네를 중심으로 -

정덕희*

1. 들어가는 말¹⁾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세상의 모습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왔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지리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레코-로만 시대 사람들은 제한된 지리적 정보를 토대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시도했으며, 그 흔적들은 당시 사람들의 정치관, 철학, 사상, 종교관 등이 응축된 하나의 결과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²⁾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 사회의 세계관—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던 관점—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정체성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성서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정 본문 속에 내재된 세계관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그 저자의 신학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 한남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Deok Hee Jung, “Luke’s Worldview: A Study of the *Oikoumene* in Luke-Ac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2018), 15-81, 199-197을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Peter Whitfield, *The Image of the World: Twenty Centuries of World Maps* (London: The British Library, 1994). 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누가-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라보았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누가의 세계관은 초기 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세계관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신학과 사상을 엿보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한다. 그린(Joel B. Green)은 누가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실제 누가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 세계; 둘째, 누가가 본문을 통해 묘사하는 세계 (누가의 저술에 의해 구체화되는 세계); 셋째, 누가가 소망하고 있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의 모습).³⁾ 그린이가 구분해서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다. 누가는 분명 자신의 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 세계, 즉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직시하고 있다. 그 세계를 누가-행전에서 자신의 유려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그 저술 속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 즉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현실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누가가 묘사하는 세계, 즉 그린이가 분류한 두 번째 세계의 모습을 통해 세 번째 측면—누가의 의도 및 누가의 신학—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도행전 본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세계를 표현하던 가장 보편적인 어휘 ‘오이쿠메네’ (οἰκουμένη)⁴⁾ 및 이 용어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소요 사건을 본 연구의 중심 주제로 설정한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세상 (the inhabited world)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는 그레코-로만 시대의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⁵⁾ 하지만 오랜 세월 수세기에

3) Joel B. Green,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N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4-5.

4) 이하 이 단어는 어원 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음역된 ‘오이쿠메네’로 표기한다.

결쳐 이 단어는 다른 집단과 사회 속에서, 각각의 정치적 종교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들로 덧입혀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측면을 내포한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 용례 속에는 수많은 집단의 다양한 세계 이해와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누가는 신약성서 저자 중 유일하게 이 단어 오이쿠메네에 대하여 큰 관심을 드러낸다.⁶⁾ 누가-행전 전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총 8회 등장하게 되는데 (눅 2:1; 4:5; 21:26; 행 11:28; 17:6, 31; 19:27; 24:5), 저자는 당시 오이쿠메네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반영하면서, 8번의 용례를 폭넓은 의미로 활용한다. 그 용례를 종합해볼 때, 누가의 시각에서 세계 즉 오이쿠메네는 로마제국과 이방신에 오염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및 심판의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누가의 오이쿠메네 묘사 속에는 세상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아데미 사건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에베소 사건에 드러나는 누가의 오이쿠메네 용례를 분석하며, 누가가

-
- 5) 오이쿠메네 의미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Tassalio Schmidt, "Oikoumene," Hubert Cancik, ed., *Brill's New Pauly: Encyclopaedia of the Ancient World. Antiquity Vol. 10* (Obl-Phe) (Leiden: Brill, 2007), 73-75; John Thornton, "Oikoumene," Roger S. Bagnall, ed., *The Encyclopedia of Ancient History* (Malden, Mass.: Wiley-Blackwell, 2013), 4876. 그리고 국내 학자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문희석, "오이쿠메네(oikoumene)의 성서적 이해 (1)," 『기독교사상』 33 (1990), 174-178; "오이쿠메네(oikoumene)의 성서적 이해 (2)," 『기독교사상』 34 (1990), 170-176.
- 6)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15회 등장하는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8회가 누가-행전에서 (눅 2:1; 4:5; 21:26; 행 11:28; 17:6, 31; 19:27; 24:5) 그리고 나머지 7회가 다른 책에 등장 한다 (마 24:14; 롬 10:18; 히 1:6; 2:5; 계 3:10; 12:9; 16:14). 신약성서 오이쿠메네의 용례에 관한 연구는 Barbara R. Rossing, "(Re)Claiming Oikoumene," Shelly Matthews, ed., *Walk in the Ways of Wisdom: Essays in Honor of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Harrisburg, Pa.; London: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을 참고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오이쿠메네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James M. Scott, "Luke's Geographical Horizon," David W. J. Gill and Conrad H. Gempf, eds.,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BAFCS 2 (Grand Rapids, Minn.: Eerdmans, 1994).

현실의 오이쿠메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세상에 대한 어떠한 미래적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오이쿠메네에 대한 개략적 연구를 통해 오이쿠메네가 지중해 세계 다양한 집단 속에서 시대에 따라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로 재해석되어 왔음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소요 사건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오이쿠메네(*οἰκουμένη*)

2.1. 정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리적 영역으로서의 지구($\gamma\eta$)와 별도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상을 오이쿠메네(*οἰκουμένη*, the inhabited world)라고 표현했다. ‘거주’(inhabit/dwell)를 의미하는 동사 *οἰκέω*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세계’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그리스 문헌 중 오이쿠메네에 대해 가장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문헌은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가 저술한 *Geographica*이다. 스트라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오이쿠메네라 부른다 (*καλοῦμεν γὰρ οἰκουμένην ἣν οἰκοῦμεν καὶ γνωρίζομεν*)” (*Geog.* 1.4.6).⁷⁾

오이쿠메네는 고대 그리스인의 인간 거주 영역에 대한 궁금중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궁금중을 해소하고자 여행과 탐사를 통해 얻은 지리 정보를 토대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 즉 오이쿠메네에

7) 스트라보의 오이쿠메네 이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Daniela Dueck, *Strabo of Amasia: A Greek Man of Letters in Augustan Rom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40-45.

대한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이쿠메네의 면적 및 모양을 측정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방대한 지리정보를 통해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담론을 전개했으며, 오이쿠메네라는 단어 속에 인류관 및 지리적-공간적 개념들을 투영시켜 나갔다.⁸⁾

2.2. 로만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는 로마제국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어 *οἰκουμένη*에 상응하는 라틴어 *orbis terrarum*을 사용하여 세계를 표현했다. 다만 오이쿠메네에 대한 그리스와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로마인들에게 이 단어는 매우 정치적 성향을 띤 용어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로마의 지리·역사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지리적 측면에서 오이쿠메네의 범위와 형태를 연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말 무렵부터 로마가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오이쿠메네는 점차 로마에 의해 정복당한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되었다. 로마인들은 *orbis terrarum*을 *orbis Romanus*와 동일시했다 (키케로, *Rep.* 3.15.24).⁹⁾ 실제 1세기 당시 로마가 전체 오이쿠메네에서 점령한 부분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전체 세계(오이쿠메네)를 점령한 듯한 과장법(hyperbole)을 통해 그 위세를 드러냈다. 로마인들은 점차 ‘오이쿠메네=로마 지배영역’의 공식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이쿠메네는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이라기 보다는 로마제국과 동일시 되며 통용되는 정치적 용어가 되었다.

8) Daniela Dueck, *Geography in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84-90

9) Clifford Ando, *Imperial Ideology and Provincial Loyalty in the Roman Empire*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327-328.

2.3. 70인역

오이쿠메네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로마 문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헬레니즘 유대 전통에서도 오이쿠메네에 대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¹⁰⁾ 히브리어 ארץ, 및 תבל이 주로 70인역에서 오이쿠메네로 번역되는데, ארץ 보다 는,¹¹⁾ 주로 תבל이 오이쿠메네로 번역된다.¹²⁾ 구약에서 땅, 지구, 세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자주 등장하는 ארץ에 비해, 보통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을 묘사하는 תבל이 주로 오이쿠메네로 번역된다. 스타델만 (Luis Stadelmann)은 “ארץ와 תבל의 결정적 차이는 세상의 거주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근거한다”¹³⁾라고 설명한다. NRSV는 이런 의미를 잘 반영하여 ארץ를 earth로, תבל을 world로 번역한다.¹⁴⁾

다양한 용례를 통해 70인역에서 오이쿠메네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이쿠메네는 인간 거주공간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집약된 단어이다 (출 16:35; 시 24:1; 33:8; 49:1; 잠 8:31); 둘째, 오이쿠메네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고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다 (시 18:15; 50:12; 93:1; 96:10; 사 14:17).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시 9:8). 이처럼 오이쿠메네는 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땅(earth)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거주하는 세상(the inhabited world)으로서의 의미에 더욱 강조

10) 70인역은 세상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오이쿠메네를 사용한다. 시편 (17회), 이사야 (16회), 다니엘 (3회), 예레미야 (2회), 에스더 (2회), 출애굽기 (1회), 잠언 (1회), 애가 (1회), 그리고 사무엘상 (1회)

11) 가령 ארץ는 11번 오이쿠메네로 번역된다 (LXX 시 71:8[72:8]; 사 10:23; 13:5; 13:9; 14:26; 23:17; 24:1; 24:4; 37:16; 37:18; 62:4)

12) תבל이 오이쿠메네로 번역된 것은 총 33회인데 주로 시편(15회)과 이사야(9회)에 해당한다.

13) Luis I. J. Stadelmann, *The Hebrew Conception of the World: A Philological and Literary Study*, AnBib 39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 1970), 130.

14) LXX 시 23:1 [24:1]; 32:8 [33:8]; 76:19 [77:19]; 88:12 [89:11]; 89:2 [90:2]; 96:4 [97:4]; 95:13 [96:13]; 97:9 [98:9]; 사 24:4; 34:1; 렬 10:12; 28:15 [51:15]; 애 4:12.

점을 두고 있다 (시 24:1; 33:8; 89:11; 렘 10:12). 더 나아가 오이쿠메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분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이다 (시 50:12; 93:1).

2.4. 필로, 요세푸스

70인역에서 살펴본 오이쿠메네 용례 분석을 통해, 제2 성전기 유대 사회가 오이쿠메네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이쿠메네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세상이었다.¹⁵⁾ 이러한 점은 필로(Philo)의 문헌에서 잘 드러난다. 필로는 온 세상 즉 오이쿠메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고 밝힌다 (*Spec.* 3.8). 그리고 이러한 오이쿠메네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 온 인류를 향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Spec.* 2.163).¹⁶⁾ 유대인은 오이쿠메네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온 인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Spec.* 1.303). 하지만 필로는 오이쿠메네를 유대 전통의 관점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다. 동시에 필로는 오이쿠메네에 대한 당시 현실적인 인식도 반영을 한다. 즉 오이쿠메네를 자신의 제국과 동일시하는 로마인들의 정치적 인식도 반영하여, 오이쿠메네가 로마의 영역임을 서술하고 있다 (*Legat.* 10). 이처럼 필로는 오이쿠메네에 대한 양면적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오이쿠메네와 로마 오이쿠메네를 동시에 취한다.

이러한 점은 요세푸스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요세푸스는 오이쿠메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B.J.* 5.187).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이쿠메네에 흩어져 존재하면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15) Pieter Willem van der Horst, *Philo's Flaccus: The First Pogrom: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Boston: Brill, 2003), 144.

16) Peder Borgen, *Philo of Alexandria: An Exegete for His Time* (Leiden; New York: Brill, 1997), 211-213.

(*B.J.* 7.43) 하나님의 통치가 오이쿠메네 전체에 흘러퍼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B.J.* 5.218; *A.J.* 4.115-6).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당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오이쿠메네가 결국 로마제국과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현실 오이쿠메네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며 (*C. Ap.* 2.41), 모든 오이쿠메네는 로마 제국의 수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B.J.* 2.388-390; 3.402; 4.656; 6.312).¹⁷⁾

2.5. 세계관의 혼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이쿠메네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 속에서 당시 상이(相異)한 세계관들이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오이쿠메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혼재하는 두 세계관은 당시 지중해 일대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거나, 오이쿠메네를 자신의 영역과 동일시하는 로마의 위세를 경험한 모든 집단이 가졌을 수 있는 세계관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유대공동체와 더불어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⁸⁾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 자신들이 현재 두 발 딛고 있는 이 오이쿠메네는 어떠한 곳인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나는

17)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모든 지역과 땅을 나열함으로써 (*B.J.* 2.358-387), 오이쿠메네가 결국 로마 제국의 수하에 있음을 드러낸다.

18) 당시 혼재하던 세계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James M. Scott, “Luke’s Geographical Horizon,” David W. J. Gill and Conrad H. Gempf, eds.,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BAFCs 2 (Grand Rapids, Minn.: Eerdmans, 1994); Dean P. Béchar, *Paul Outside the Walls: A Study of Luke’s Socio-Geographical Universalism in Acts 14:8-20*, AnBib 143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0), 341.

지금 어떠한 오이쿠메네에 살고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물론 누가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이쿠메네가 로마 제국이 공언하는 로마 오이쿠메네임을 분명 밝히고 있다 (눅 2:1; 행 11:28; 17:6; 19:27). 하지만 동시에 누가는 구약성서를 토대로 오이쿠메네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 명확히 밝히려고 노력한다 (행 17:22-31). 누가에게는 하나님 통치하는 오이쿠메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 소요 사건이다.¹⁹⁾

3. 에베소 소요사건

3.1. 에베소와 아데미

사도행전 19장 21-41절은 에베소에서 발생한 소요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아데미(Artemis) 여신 숭배 및 그 여신 숭배로 인해 부수적 유익을 누리던 에베소 시민을 향한 공격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 문화의 요충지가 되는 도시였다. 그래서 지중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도시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특히 지형적 이점 때문에 날로 팽창해 갔고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스트라보, *Geog.* 14.1.24).

19) 이러한 점은 누가의 오이쿠메네 용례분석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누가-행전에서 오이쿠메네는 총 8회 등장하게 되는데 (눅 2:1; 4:5; 21:26; 행 11:28; 17:6, 31; 19:27; 24:5), 저자는 당시 오이쿠메네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8번의 용례를 폭넓은 의미로 활용한다. 로마제국 (눅 2:1; 행 11:28; 17:6; 19:27), 온갖 이방신이 득세하는 곳 (눅 21:26; 행 17:31; 19:27), 회복의 대상 (눅 4:5),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세계 (행 17:6; 24:5) 등이다.

무엇보다 당시 에베소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 및 이 여신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때문이었다. 아데미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부상하여 로마 제국 전 영역에 걸쳐 위세를 떨친 여신이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아데미 여신은 다음과 같이 칭송된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μεγάλη ἡ Ἄρτεμις Ἐφεσίων) (28절).²⁰⁾ 이 표현은 34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다. 아데미 앞에 부여된 형용사 μέγας는 아데미 여신을 향한 에베소 시민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준다. 아데미에게는 당시 수많은 최상급의 수식어가 붙었었다. 으뜸가는 왕권(πρωτοθρόνιος)을 지닌 우주의 여왕(Βασιλῆϊς κόσμου)이며, 주(Kυρία), 구원자(Σώτειρα), 또는 하늘의 여신(οὐράνιος θεός Ἄρτεμις Ἐφεσία) 으로 불리웠으며, 다양한 최상급 수식어—μεγίστη, ἀγιωτάτη, ἐπιφανεστάτη—들이 부여되는 여신이었다.²¹⁾

에베소인들은 아데미가 하늘에 거하는 위대한 여신이라 믿었다. 그래서 천상에 존재하는 아데미 여신과 땅에 거주하는 자신들의 공간을 구분한다 (35절). 그리고 천상의 불멸의 신 아데미가 이 땅에 임한 것으로 생각했다.²²⁾ 누가 사용하는 헬라이어 διοπετής 는 이러한 수직적 공간 구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천상의 신 아데미가 땅위에 임하는 곳으로 여겨지던 장소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였다. 에베소에 위치한 이 신전은 종교 의식을 위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시민들의 경제적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24-25절).²³⁾ 아데미

20) 이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서구절은 『새번역』을 사용한다.

21) Richard E. Oster, “Ephesus as a Religious Center under the Principate, I. Paganism before Constantine,” in *ANRW* 18.3:1700, 1724; Guy MacLean Rogers, *The Mysteries of Artemis of Ephesus: Cult, Polis, and Change in the Graeco-Roman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75-76.

22) Scott Shauf, *Theology as History, History as Theology: Paul in Ephesus in Acts 19*, BZNW 133 (Munich: Walter De Gruyter, 2005), 244.

23) Paul Trebilco, “Asia,” David W. J. Gill and Conrad H. Gempf, eds.,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BAFCS 2 (Grand Rapids, Minn.: Eerdmans, 1994), 322-326; C. L. Brinks,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Acts 19:23-41 in Light of Goddess Worship in Ephesus,” *CBQ* 71 (2009), 781-782; Shauf,

신전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요한 일에 관한 신탁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 장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공간이 되었다.²⁴⁾ 에베소 시민들에게 있어서 아테미 모형을 만들어 순례객들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그들의 중요한 경제적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베소인 스스로가 “아테미 신전 수호자”(νεωκόρος τῆς Ἀρτέμιδος) (35절)가 될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이처럼 아테미와 에베소 시민의 관계는 철저한 호혜적(互惠的) 관계에 기반한다.²⁵⁾ 에베소인들은 아테미가 자신들에게 준 혜택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아테미를 수호하는 자가 될 것임을 다짐한 것이다.

에베소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테미의 위세는 에베소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테메드리오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아테미 여신임을 역설한다 (27절). 아테미 여신은 지중해 일대 및 유럽 전역에 걸쳐 숭배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비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신 아테미는 우리 도시 (에베소)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신성을 통해 이 도시(에베소)를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테미는 헬라인과 더불어 야만인(非헬라인)에게서까지도 숭상을 받는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아테미의 신전과 숭배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녀의 명백한 현현 때문에 수많은 사원들과 제단들이 봉헌되고 있다 (162/3 또는 163/4 CE).²⁶⁾

스트라보의 기록에 의하면 아테미 신상숭배는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프랑스 북해지역 인근, 그리고 페니키아까지 이르렀다 (*Geog.* 3.4.6, 8; 4.1.8).²⁷⁾ 파우사니우스(Pausanius)는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아테미 여

Theology as History, 244.

24) 심상범, 『신약 주해를 위한 신약서론』 (서울: 이레서원, 2005), 201.

25) Oster, “Ephesus,” 1727.

26) G. H. R. Horsley, “The Inscriptions of Ephesus and the New Testament,” *NovT* 34 (1992), 154에서 인용하였음.

27) Richard E. Oster, “Holy days in honour of Artemis,” G.H.R. Horsley, ed., *New Documents Illustrating Early Christianity: A Review of Greek Inscriptions and Papyri Published in 1979* (North Ryde, Australia: Macquarie University, 1981), 4:80-81.

신의 명성, 에베소 아데미 신전의 거대한 크기, 에베소인들의 열정이 그러한 확대를 이루어 냈다고 언급한다 (*Descr.* 4.31.8). 당시 아데미는 단순한 종교 및 신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거대한 존재, 즉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힘 그 자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아데미 숭배가 로마 제국 황제 숭배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²⁸⁾ 에베소 신전에서 아데미 숭배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의 흔적까지도 함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홀슬리(G. H. R. Horsley)는 당시 지중해 일대로 뻗어나가는 아데미의 위상이 황제 숭배 의식과 결부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팽창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²⁹⁾ 아데미 신전에서의 제의가 황제 숭배 의식과 결합되면서 아데미 여신은 로마 제국을 보호하고 동시에 제국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³⁰⁾

실제로 에베소인들이 아데미 수호자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시하던 헬라이어 *νεωκόρος*는 황제 숭배 의식의 중심 거점 도시를 지칭하는 경우에 종종 사용되기도 했었다.³¹⁾ 그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물론 아데미 여신이었지만 에베소인들은 이와 더불어 로마 황제에 대한 수호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³²⁾ 에베소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는 황제 신전의 지기는 아데미 신전의 지기와 동일하다는 내용(*δῖς νεωκόρος τῶν Σεβαστῶν...καὶ νεωκόρος τῆς Ἀρτέμιδος*)이 나타난다.³³⁾ 그러므로 “에베소 수호자” (*Ἐφεσίων δῖς*

28) Steven J. Friesen, *Twice Neokoros: Ephesus, Asia, and the Cult of the Flavian Imperial Family*, RGRW 116 (Leiden: Brill, 1993), 50-75; idem., “The Cult of the Roman Emperors in Ephesus,” Helmut Koester, ed., *Ephesus, Metropolis of Asia: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Its Archaeology, Religion, and Culture*, HTS 41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Colin Miller, “The Imperial Cult in the Pauline Cities of Asia Minor and Greece,” *CBQ* 72 (2010), 326-329.

29) Horsley, “Inscriptions of Ephesus,” 156.

30) Michael Immendörfer, *Ephesians and Artemis: The Cult of the Great Goddess of Ephesus as the Epistle’s Context*, WUNT 2.436 (Tübingen: Mohr Siebeck, 2017), 119-120.

31) Hans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7), 166.

32) Friesen, “Cult of the Roman,” 229.

νεωκόρων)는 아데미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Σεβαστός)에 대한 복종과 헌신까지도 포함하는 에베소인들의 자의식이었던 셈이다.³⁴⁾ 아데미 신전에서 서의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을 통해 에베소 지역 유지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된다.³⁵⁾ 덕분에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 황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정치 문화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거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³⁶⁾

결국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수호하는 한 여신을 위한 신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아데미 숭배는 각 지역 권력층과 연결되어, 여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강력한 존재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³⁷⁾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아데미 여신은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는 이방 종교 그리고 로마제국 힘의 모형이었다. 아데미는 팽창, 이교도, 제국, 힘의 논리 이 모든 것이 응축된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누가가 아데미와 오이쿠메네를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구절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3.2. 아데미와 오이쿠메네

누가는 아데미 여신이 온 오이쿠메네를 통해 숭배되고 있다고 표현한다.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τῆς μεγαλειότητος αὐτῆς ἣν

33) Ephesos 2, p.163, no.40. Conzelmann, *Acts*, 166에서 인용함

34) A.N. Sherwin-White, *Roman Society and Roman Law in the New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63), 88.

35) Douglas R. Edwards, *Religion & Power: Pagans, Jews, and Christians in the Greek E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77.

36) Helmut Koester, “Ephesos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in *Ephesos, Metropolis of Asia*, 126-133.

37) Edwards, *Religion & Power*, 75.

ὅλη ἡ Ἀσία καὶ ἡ οἰκουμένη σέβεται) (27절). 여기에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누가의 시선으로 볼 때 오이쿠메네는 이방 종교와 제국의 힘의 질서가 결합되어 위세를 누리는 공간이었다. 오이쿠메네 즉 로마 제국이 점령하여 호령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방신으로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앞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어느 정도 밝힌 적이 있다. 16장에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간 이후 테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온 오이쿠메네를 뒤흔든다는 이유로 시청 관원들에게 기소된다 (17:6).³⁸⁾ 바울은 로마가 설정한 오이쿠메네의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가 뒤흔드는 그 오이쿠메네는 우상에 가득 깃들여진 오염된 상태의 세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의 오이쿠메네는 하나님ی 통치하고 다스리는 오이쿠메네가 아닌 이방신이 가득한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17:22-23).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하나님께서 세계(오이쿠메네)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7:29, 31).³⁹⁾

누가는 이러한 점을 19장 에베소 사건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지중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던 로마 오이쿠메네는 정치적으로는 제국의 질서에 점령당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는 힘의 논리에 정복당한 상태이며,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테미로 대변되는 이방 종교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누가는 오이쿠메네가 구축한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오이쿠메네가 숭배하는 아테미는 외견상 화려한 신전과 더불어 거대한 힘을 소유한 종교로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는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을 예리하

38) οἱ τὴν οἰκουμένην ἀναστατώνσαντες οὗτοι καὶ ἐνθάδε πάρεισιν (행 17:6b)

39) 바울이 오이쿠메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아레오바고 설교는 종교적 갈등과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학철, “아레오바고에 선 사도바울,” *Canon&Culture* 3 (2009).

게 부각시킨다. 아데미에 의해 잠식당한 세상의 모습을 소동에 휩싸인 에베소 군중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세계를 직시하게 만든다.

먼저 누가는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음을 기술한다 (19:23).⁴⁰⁾ 그 소동은 바울의 선포—“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19:26)—에서 비롯된다.⁴¹⁾ 바울의 선포는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에 근거해 구축해온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게 된다 (24, 25, 27절).

그가 일으킨 하나의 소동(τάραχος) (23절)은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고 (29절), 이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소요(στάσις) (40절)가 된다. 특히 로마인 시정 서기관의 시각에서 그 소요 사태를 향해 στάσις라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의 소동을 로마제국의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⁴²⁾ 이처럼 로마 오이쿠메네는 점차 소요의 공간이 되고 있다.

소동과 소요의 한가운데에는 에베소 군중(ἄλλοι) (30, 33절)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데미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굳건한 모습과는 달리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흥분하며 분별력이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호는 ἄλλοι는 합리적 이성(λογισμός)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분별력 없는, 정치적 소요의 근원이며 위험한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⁴³⁾

이와 더불어 누가는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숭배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바울이 전한 ‘도’는 에베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때 데메드리오는 사업이야기로 자신의 호소를 시작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잘살

40) 누가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 끊임없이 소동과 소요에 연루되었음을 언급한다: 안디옥 (행 13:50), 이고니온 (14:2-5), 루스드라 (14:19), 데살로니가 (17:5-8), 베뢰아 (17:13), 고린도 (18:12-13), 예루살렘 (21:27-30).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오이쿠메네’를 소란케(ἀναστατώ)고 누가는 기록한다.

41) 바울이 이전에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메시지—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신에 대한 강한 부정 (17:29)—가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2) C. Kavin Rowe, “The Ecclesiology of Acts,” *Interpretation* 66 (2012), 262.

43) 박영호, “그리스 민주정치의 맥락에서 본 에베소 소동사건-사도행전 19:23-41의 에베소 폭동 사건 보도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정체성,” 『신약논단』 21 (2014), 479-492.

고 있었다는 것(ἐκ ταύτης τῆς ἐργασίας ἢ εὐπορία ἡμῖν ἐστίν) (25절)을 이야기하며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데메드리오의 궁극적 관심은 아데미라기 보다는 “돈벌이” (ἐργασία) (24절)에 가까웠으며 이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εὐπορία)이었다.

데메드리오는 군중들을 동요시키고자 다시 한번 사업 이야기를 꺼내든다 (27절). 이때 사용된 μέρος는 사업의 수익구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확대 해석 가능하다.⁴⁴⁾ 그 이유는 ‘도’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몰락이 곧 시민사회에서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⁵⁾ 결국 이 모든 소동의 근원에는 그들이 떠받드는 여신에 대한 숭상 보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데메드리오는 이 사태를 종교적 이슈로 확대하고 있지만 (27절), 그 출발점은 새롭게 밀려드는 ‘도’의 확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여신 숭배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끔 만들고 있다.

누가는 이어서 오이쿠메네가 숭상하는 아데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공격을 한다. 에베소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여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διοπετής) 존재로 인식되었다 (35절). 이 단어는 신성한 하늘 공간과 땅을 구분 짓는 표현이다. 물론 διοπετής는 제우스(Zeus)의 권세 하에 땅에 내려온 신을 의미하는 신성한 표현이었지만, 키너(Craig S. Keener)는 누가가 이 단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이방신의 허구를 인식케 하기 위함이라 주장한다.⁴⁶⁾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는 말하지만 데메드리오 스스로가 아데미를 손으로 만들어진 신 (θεοὶ οἱ διὰ χειρῶν γινόμενοι) (26절)에 불과하다고 또한 이야

44) 박영호, “그리스 민주정치의 맥락에서 본 에베소 소동사건” 494. 반면 이와 관련하여 이달은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와 닿았던 ‘수차명예’의 가치와 관련 있음을 강조한다. 이달, 『사도행전』,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3), 279.

45) 박영호, “그리스 민주정치 맥락에서 본 에베소 소동사건,” 494.

46) Craig S. Keener,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4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2015), 3:2932.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오이쿠메네가 숭상하는 아데미 여신의 허구에 대해 누가는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직적 공간 구분을 의미하는 35절의 *διοπετής*는 27절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διοπετής*) 아데미는 결국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καθαίρω*)는 것이다 (27절). 수직적 낙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데미의 모습이다.

바울은 오이쿠메네가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본산지 에베소에 와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울과 에베소인들의 소동의 모습을 통해 누가는 독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 오이쿠메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3.3. 오이쿠메네와 도(道)

누가에게 있어서 현실의 오이쿠메네는 분명 정치적으로 로마의 수하에 있으면서 이방신으로 오염된 공간이다. 하지만 누가는 오이쿠메네에 대한 양가적 입장을 취한다. 오이쿠메네는 결국 회복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 사건의 도입부에 누가가 제시하는 구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 나라 선포 (19:8) 및 도의 선포(19:9, 23)로 시작한다. 특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20절)고 묘사한다. 바울의 선포는 에베소와 거의 온 아시아에서 선포되고 있다 (26절). 바울을 통해 점차 강하게 위세를 떨쳐가는 말씀(*λόγος*)의 영역이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 에베소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복음은 오이쿠메네를 뒤덮고 있던 이교도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힘있게 침투해 오고 있다.

특히 누가는 에베소 소요사건을 ‘도(道, *ὁδός*)’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의 승천과 더불어 내려진 지상명령(1:8)을 따르는 자를 “도를 믿는 자”(9:2)라고 표현한다. 도(*δόξ*)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insiders*)에 의해 통용되는 단어였으며, 하나의 운동(*movement*)을 의미했다.⁴⁷⁾ 누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δόξ*를 에베소 사건에 넣음으로써 초기 그리스도교의 확산 운동을 강조한다. 그 ‘도’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그 ‘도’는 마치 아테미가 온 오이쿠메네 위에 퍼져가듯 로마 오이쿠메네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다. 아테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끊임없이 지경을 넓혀가며 제국의 공간을 차츰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6:7; 9:31; 12:24; 16:5; 19:20; 28:30-31).

그런 맥락에서 볼 때 19장의 소동은 팽창하던 두 힘의 대결이며, 더 나아가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이기도 하다.⁴⁸⁾ 결국 에베소는 두 거대한 힘의 충돌 장소가 된다. 아테미 및 초기 그리스도교 모두 당시 끊임없이 팽창하던 두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국의 오이쿠메네 위에 ‘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소망하는 세계 즉 하나님ی 다스리는 세상으로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누가 입장에서 오이쿠메네의 현실적 상황 즉 로마가 점령하여 자신들의 힘과 종교적 질서로 채색한 오이쿠메네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누가는 현실 오이쿠메네의 상태가 창세기를 통해 언급된 진정한 오이쿠메네의 모습이 아님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의 오이쿠메네는 심판의 대상임을 명시한다 (참고 17:31).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독자들로 하여금 품게 한다. 그 회복의 궁극적 모습은 하나님이 인류 모든 족속이 거주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다스리는 세계이다 (참고 17:26-27). 특별히 ‘도’로 대변되는 초기 교회의 운동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회복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오이쿠메네를 뒤흔드는 중심에 바울을

47) Carl R. Holladay, *Acts*,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194.

48) Trebilco, “Asia,” 336.

위치시킨다 (19:23; 참고 17:6).

특별히 누가는 확대되는 ‘도’의 이야기를 바울의 로마행 결정 직후에 배치하고 있다 (21절). 바울의 본격적 로마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누가는 바울의 강한 결단을 표현하는 $\delta\epsilon\iota$ 를 넣음으로써 바울의 로마 여정에 대한 강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⁴⁹⁾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는 1세기 오이쿠메네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더 나아가 도시 그 자체로도 오이쿠메네로 대변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⁵⁰⁾ 환언하자면 로마리는 도시 그 자체가 오이쿠메네로 인식되던 상황이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로마 오이쿠메네의 심장부로 이동하고 있다.⁵¹⁾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에베소 소요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세상(에베소)이 소동에 뒤흔들리는 사건이 결국 로마 오이쿠메네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 기대를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

4. 나가는 말

누가의 세계관을 통해 저자의 저술 의도와 신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오이쿠메네 개념을 통해 누가의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오이쿠메네가 등장하는 본문 중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소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에베소 사건에 드러나는 누가의 오이쿠메네 용례를 분석하며, 누가가 로마 오이쿠메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

49) 반재광, “누가-행전의 여행 내러티브 연구: 눅 9:51-19:44와 행 19:21-28:31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6 (2013), 140-141.

50) 바렛트는 로마를 단순히 세상의 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세상 그 자체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C.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ICC (2 vols.; Edinburgh: T&T Clark, 1994-1998), 2:816.

51) 하지만 바울은 로마행 결심과 동시에 로마에 가기에 앞서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결심도 한다. 예루살렘 여정은 로마행과 같은 공격적 입장보다는 오히려 비극적 요소에 가깝다. 이와 관련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이두희,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 문체,” *Canon & Culture* 5 (2011), 237-267.

았다.

본고는 도입부에서 그린이가 제시했던 세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한 현실의 세계 (로만 오이쿠메네)를 기반으로; 둘째,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 (이방신에 의해 잠식당한 상태)하며; 셋째, ‘도’를 통해 회복되는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

누가는 분명 현실의 오이쿠메네를 직시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오이쿠메네의 기원과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소망한다. 누가의 세계관, 그린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가 소망하는 세계의 모습은 예수의 ‘도’를 통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누가의 소망이 에베소 사건에 투영되고 있다.

에베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등장한다. 이때 바울에 의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기존의 오이쿠메네를 뒤흔들면서 일어난다. 그 회복의 이야기로 누가는 오이쿠메네의 혼돈을 겪고 있는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혼재한 세계관 속에서 혼란을 겪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서 현실 오이쿠메네를 직시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

<주제어>

행 19:21-41, 오이쿠메네, 세계관, 에베소, 아테미, 로마제국, 회복

<Key Words>

Acts 19:21-41, Oikoumene, Worldview, Ephesus, Artemis, Roman Empire, Restoration

참고문헌

- 김학철, “아레오바고에 선 사도바울,” *Canon&Culture* 3 (2009), 129-151.
- 문희석, “오이쿠메네(oikoumene)의 성서적 이해(1),” 『기독교사상』 33 (1990), 174-178.
- 문희석, “오이쿠메네(oikoumene)의 성서적 이해(2),” 『기독교사상』 34 (1990), 170-176.
- 박영호, “그리스 민주정치의 맥락에서 본 에베소 소동사건-사도행전 19:23-41의 에베소 폭동 사건 보도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정체성,” 『신약논단』 21 (2014), 477-516
- 반재광, “누가 - 행전의 여행 내러티브 연구: 눅 9:51-19:44와 행 19:21-28:31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6 (2013), 125-155.
- 이 달, 『사도행전』,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3.
- 이두희,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 문체,” *Canon&Culture* 5 (2011), 237-267.
- Ando, Clifford, *Imperial Ideology and Provincial Loyalty in the Roman Empire*,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Barrett, C. K., *The Acts of the Apostles*, 2 vols., ICC, Edinburgh: T&T Clark, 1994-1998.
- Béchar, Dean P., *Paul Outside the Walls: A Study of Luke's Socio-Geographical Universalism in Acts 14:8-20*, AnBib 143,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0.
- Borgen, Peder, *Philo of Alexandria: An Exegete for His Time*, Leiden; New York: Brill, 1997.
- Brinks, C. L.,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Acts 19:23-41 in Light of Goddess Worship in Ephesus,” *CBQ* 71 (2009), 776-794.
- Conzelmann, Hans,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7.

- Dueck, Daniela, *Strabo of Amasia: A Greek Man of Letters in Augustan Rom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 _____, *Geography in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Edwards, Douglas R., *Religion & Power: Pagans, Jews, and Christians in the Greek E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Friesen, Steven J., *Twice Neokoros: Ephesus, Asia, and the Cult of the Flavian Imperial Family*, RGRW 116, Leiden: Brill, 1993.
- _____, "The Cult of the Roman Emperors in Ephesus," in *Ephesus, Metropolis of Asia: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Its Archaeology, Religion, and Culture*, edited by Helmut Koester, HTS 41,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 Green, Joel B.,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Luke*, N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Holladay, Carl R., *Acts*,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 Horsley, G. H. R., "The Inscriptions of Ephesus and the New Testament," *NovT* 34 (1992), 105-168.
- Immendorfer, Michael, *Ephesians and Artemis: The Cult of the Great Goddess of Ephesus as the Epistle's Context*, WUNT 2.436, Tübingen: Mohr Siebeck, 2017.
- Jung, Deok Hee, "Luke's Worldview: A Study of the Oikoumene in Luke-Ac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2018.
- Keener, Craig S.,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4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2015.
- Koester, Helmut, "Ephesus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in *Ephesus, Metropolis of Asia: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Its Archaeology*,

- Religion, and Culture*, edited by Helmut Koester, HTS 41,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 Miller, Colin, "The Imperial Cult in the Pauline Cities of Asia Minor and Greece," *CBQ* 72 (2010), 314-332.
- Oster, Richard E., "Holy days in honour of Artemis," in *New Documents Illustrating Early Christianity: A Review of Greek Inscriptions and Papyri Published in 1979*, edited by G.H.R. Horsley, North Ryde, Australia: Macquarie University, 1981.
- _____, "Ephesus as a Religious Center under the Principate, I. Paganism before Constantine," in *ANRW* 18.3:1661-1728.
- Rogers, Guy MacLean, *The Mysteries of Artemis of Ephesos: Cult, Polis, and Change in the Graeco-Roman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 Rowe, C. Kavin., "The Ecclesiology of Acts," *Interpretation* 66 (2012), 259-269.
- Romm, James S., *The Edges of the Earth in Ancient Thought: Geography, Exploration, and Fi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Rossing, Barbara R., "(Re)Claiming Oikoumenē," in *Walk in the Ways of Wisdom: Essays in Honor of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edited by Shelly Matthews, Harrisburg, Pa.; London: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 Schmidt, Tassalio, "Oikoumene," in *Brill's New Pauly: Encyclopaedia of the Ancient World. Antiquity Vol. 10 (Obl-Phe)*, edited by Hubert Cancik, Leiden: Brill, 2007.
- Scott, James M., "Luke's Geographical Horizon," in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edited by David W. J. Gill and Conrad H.

- Gempf, BAFCS 2, Grand Rapids, Minn.: Eerdmans, 1994.
- Shauf, Scott, *Theology as History, History as Theology: Paul in Ephesus in Acts 19*, BZNW 133, Munchen: Walter De Gruyter, 2005.
- Sherwin-White, A.N., *Roman Society and Roman Law in the New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63.
- Stadelmann, Luis I. J., *The Hebrew Conception of the World: A Philological and Literary Study*, AnBib 39,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 1970.
- Thornton, John, "Oikoumene," in *The Encyclopedia of Ancient History*, edited by Roger S. Bagnall, Malden, Mass.: Wiley-Blackwell, 2013.
- Trebilco, Paul, "Asia," in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edited by David W. J. Gill and Conrad H. Gempf, BAFCS 2, Grand Rapids, Minn.: Eerdmans, 1994.
- Van der Horst, Pieter Willem, *Philo's Flaccus: The First Pogrom: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Boston: Brill, 2003.
- Whitfield, Peter, *The Image of the World: Twenty Centuries of World Maps*, London: The British Library, 1994.

<초록>

누가의 세계관

- 에베소 소요사건(행 19:21-41)에 등장하는 오이쿠메네를 중심으로 -

정덕희
(한남대학교)

본 연구는 누가의 세계관 연구를 통해 사도행전 본문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오이쿠메네를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통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소요 사건을 분석한다. 인간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오이쿠메네는 당시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의미로 이해되어져 왔다. 서로 다른 오이쿠메네 개념이 공존했다는 것은, 당시 다양한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혼재된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해 누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오이쿠메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전달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테미는 단순한 여신 그 이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이 내재된 상징적 존재였다. 그리고 로마 권력과의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였다. 그 아테미는 에베소를 넘어 온 오이쿠메네가 추앙하는 존재였다. 이때 바울이 선포하는 ‘도’를 통하여 기존의 오이쿠메네의 질서는 흔들리게 된다. 로마 오이쿠메네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오이쿠메네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던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바울이 일으킨 소요는 기존의 오이쿠메네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오이쿠메네를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운동이 된다.

<Abstract>

Luke's Worldview:
A Study of the *Oikoumene* at the Riot in Ephesus
(Acts 19:21-41)

Deok Hee Jung
(Han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one of the ways Luke redefines the idea of the world is by exploring the meaning of *oikoumene*, “the inhabited world,” focusing on the text of the riot at Ephesus in Acts 19:21-41. This Greek term was a representative concept to signify the Mediterranean World. Subsequently the term *oikoumene* was embraced by other cultures which needed a concept to portray the world, such as that of the Romans and the Jews. Each culture adopted the term but distinctively adapted it within its own context. There was the tension between two coexisting worlds. Subsequently, within the context of these conflicting worldviews, it was necessary for the biblical authors to clarify how audiences would perceive the *oikoumene* they inhabited. For Luke, the *oikoumene* is the world ruled by Roman hegemony in terms of politics and the pagan cult in terms of religion, but the *oikoumene* should be restored by Jesus and then his followers within their eschatological hope. This theme appears in Acts 19. In this account, Luke portrays that the *oikoumene*, itself, signifies the world that worships the goddess, Artemis. From the perspective of Luke, Artemis is venerated over much of the Roman *oikoumene*. Accordingly, Luke depicts a scene in which expansive Christianity enters forcibly into the mother-city of the idolatry cult and thereby the *oikoumene*. In

a sense, Paul's bold challenge against pagan worshippers is about who shall be the Lord on the *oikoumene*, Jesus or Artemis or the Roman Emperor? Therefore, this incident illustrates how the Way proclaimed by Paul is turning the *oikoumene* upside down.